

여야는 정쟁에 날새고 국민은 불황에 한숨만

尹정부 10개월, 대립·갈등 확산
영수회담으로 꼬인 정국 풀어야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 전반을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야의 정쟁은 거의 매일 치러지고 있고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도 내부 권력 투쟁으로 몸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이끌 통합과 배려, 미래의 화두가 실종되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중오의 정치'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하소연이 민심의 저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진 지난 대선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이 절박한 실감에 빠진 상황이다.

이 같은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는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당장, 국정 전반에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꼬인 정국의 물꼬를 트는 통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해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편이 몰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경쟁,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소모적 정쟁 구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국 민심에 감동을 주는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태원 표 논란으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좌표를 찍으며 낙선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 이태원 표의 배후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지목하며 영구 제명 청원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비명 지지층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당원들까지 당내 권력 투쟁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의 소금 역할을 했던 정의당은 좀처럼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남 민심도 일방통행식인 여권의 행태, 헌신과 결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에 빠진 상황이다.

이 같은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민심의 분노는 점차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당장, 국정 전반에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꼬인 정국의 물꼬를 트는 통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여야 대표 회동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해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편이 몰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경쟁,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소모적 정쟁 구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국 민심에 감동을 주는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성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D-30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30일 앞둔 7일 전시장 주변에 비엔날레의 주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조합장 선거...광주·전남 200곳 새롭게 선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0개 조합의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광주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6개 농·축협, 1개 수협, 1개 산림조합 등 모두 18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지난달 21-22일 49명이 후보자로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2.7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기록한 조합은 각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동곡농협, 삼도농협이다.

반면,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북광주농협 두 곳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일찌감치 당선자를 확정했다.

광주지역 선거인 수는 농협 2만3634명, 산림조합 3274명 등 2만6908명이다. 투표소는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 소재한 각 조합 사무실, 주민센터, 선관위 사무실 등 22곳에 설치되며 개표소는 서·남·북구 선관위 회의실과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등 5곳에서 운영된다.

전남에서는 142개 농협과 19개 수협, 21개 산림조합 등 182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모두 381명이 출마표를 던졌지만, 2명이 등록 무효 처리돼 최종 후보 379명으로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수 거문도수협과 해남 산이농협이 각각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최고 경쟁률

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농협 41개, 수협 6개, 산림조합 5개 등 52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전남지역 선거인 수는 농협 19만894명, 수협 2만9948명, 산림조합 5만5930명 등 27만 6782명이다. 전체 27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27곳에서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BC 개막...내일 호주와 첫 경기



한국 4강 진출 노력

6년을 기다린 무대가 시작된다. <관련 기사 18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8일 막을 올린다.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A조의 쿠바와 네덜란드가 오후 1시 개막전을 갖는다.

B조에 속한 한국은 9일 오후 12시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일본(10일 오후 7시), 체코(12일 낮 12시), 중국(13일 오후 7시)과 대결을 갖고 2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앞세운 일본전은 전 세계 야구팬들의 눈길을 끄는 경기가 될 전망이다.

WBC는 2006년 시작해 2009년부터 4년마다 개최됐지만, 2017년 4회 대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었다.

이강철 KT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자존심 회복'을 키워드로 14년 만의 4강 진출을 노린다.

한국은 2006년, 2009년 일본과 명승부를 펼치면서 첫 대회에서 4강을 이뤘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준우승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7년 WBC에서 연달아 1라운드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한국은 KIA의 '신·구에이스' 이의리와 양현종 그리고 나성범 등 KBO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28명 선수와 함께 박리고 소속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 등 30명으로 정예 멤버를 구성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 참가해 4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A·B조 상위 1-2위, C·D조 상위 1-2위가 각각 도쿄와 마이애미에서 격돌한다. 한국은 4강 티켓을 거머쥐어야 4강·결승전이 펼쳐지는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경남 지자체 '섬진강 관광시대' 연다 ▶2면

결혼식 축의금 얼마나 하세요? ▶7면

영랑 시인 탄생 120주년 '강진의 봄' ▶14면